

제4회 도시인문학세미나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현황과 자료화

2013. 3. 7(목) 16:00~18:00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



주최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제4회 도시인문학세미나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현황과 자료화



Program

개 회 식

16:00~16:10

개회선언

축 사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세 미 나

16:10~17:40

주제 발표

인천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방향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토 론

이인재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부장

정지원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이영욱 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외래교수

부 대 행 사

15:00~18:00

인천 근현대 도시경관 자료전시

제4회 도시인문학세미나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현황과 자료화

C o n t e n t s

I. 인천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방향

• 발표문 / 03

II. 도시경관 관점에서 본 인천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 토론문 / 31

III.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자료화 구축에 대한 소견

• 토론문 / 33

IV. 인천도시인문학센터

1. 도시인문학 / 37

2. 인천도시인문학센터 / 39

제4회
도시인문학
세미나



I. 인천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방향

- 발표문

인천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방향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I. 식민지기 인천 사진엽서

1. 머리말

한국의 근대 문화사나 지방사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미지 자료들 중 상당수는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별다른 주석 없이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처럼 제시되거나 본문내용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현상은 제작 당시에는 물론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이나 도시의 근대사와 같은 일련의 간행물들에 인용된 자료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제작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¹⁾ 그 원인을 근대사 관련 이미지 자료의 부족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 자료에 대한 소박한 인식이 더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1883년 개항이후 급속히 성장해온 전형적인 식민도시였던 관계로 식민지 기간 동안 도시를 소개하는 사진엽서가 대량 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기 인천을 소재로 제작된 사진엽서의 제작과 유통에 대해 살펴 보고이미지의 유형과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2. 인천 사진엽서의 제작과 유형

인천을 소재로 한 사진엽서가 본격적으로 제작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청일전쟁기를 전후한 무렵인 것으로 추측된다. 구마모토 출신 이노우에(井上嘉七)가 1894년 10월 인천으로 이주하여 사진관 영업을 개시했는데 기술이 뛰어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전망도 밝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²⁾ 인천의 사진엽서를 제작 판매하는 엽서점이었던 시부가와(澁川) 엽서점은 러일전쟁 직후에

1) 인천직할시,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 100년』(1883), 부산광역시 중구 『기록사진으로 보는釜山,釜山港 130년』(2005)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2) “이노우에 가시치(井上嘉七)는 이노우에 사진관 주인이다. 이노우에는 쿠마모토 현 아마쿠사군(天草郡), 고료촌(御領村) 사람으로 게이오 2년(1866) 10월에 태어났다. 메이지 27년(1894)년 10월 인천으로 와서 사진관을

개업하였는데 시부카와 상회는 처음에는 잡화점으로 개업하였다가 나중 사진엽서 전문점으로 바뀌었다. 러일전쟁 이후 사진엽서의 제작과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다.³⁾

개항후 10년이 되던 해인 1893년까지 인천에는 사진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엽서의 제작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엽서는 해당도시에 소재한 사진업자에 의해 제작되고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이 소장품으로 구입하거나 자국의 친지들에게 여행지에서의 소식을 적어 보내는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첫 사진관인 이노우에(井上) 사진관은 1894년에 영업을 시작했으며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3개의 사진관이 새로 개업을 하였는데 개업후 이들 사진점들은 모두 사업이 확장일로에 있었다고 한다. 특히 러일전쟁 후에 그림엽서를 취급하는 엽서점이 생기고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진엽서의 제작과 유통이 식민지에서 벌어진 전쟁과 관련하여 수요가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항기 인천의 사진관 그림엽서 판매점 현황

연도별	사진관	그림엽서판매점	비고
1883			개항
1894	1		이노우에 사진관 개점, <청일전쟁>
1898	2		
1904	3	1	시부카와 엽서점 개점, <러일전쟁>
1908	5	3	
1911	6		
1912	6	5	
계	6	5	

표 1 <개항기 인천의 사진관 그림엽서 판매점 현황>

인천을 소재로 한 사진엽서는 주로 사진관에서 촬영한 풍경과 도시 경관 사진은 엽서점이나 엽서 제작업자들에 의해 선별되어 8장이나 10장, 혹은 16장 단위로 제작되어 판매되었다.

인천을 소재로 한 사진엽서는 물론 인천의 사진업자들에 의해서만 제작된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나 “히노데(日出)”와 같은 엽서 발행업체는 조선 각 지방의 이미지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였다. 제작된 인천의 사진엽서는 시내 사진관, 엽서판매점, 경인철도의 기차역 매점, 월미도 유원지의 구내 매점과 기념품 상점을 중심으로 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노우에의 뛰어난 기술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날이 갈수록 번창해 전도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강조는 필자) 가세와사부로 편 『인천개항25년사』 1908, p. 201.

3) “메이지 37년(1904년) 인천 본정(本町-현재 인천시 중구 중앙동·관동 일대)에 잡화점을 열어 한쪽에 그림엽서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림엽서 전문점이 되었으며, 그밖에 유화, 액자 등이 있는 이 가게에는 조선의 그림엽서점으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국내외의 그림엽서를 비롯하여 조선풍경, 풍속, 등 참신하고 진기한 물건을 엽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점주는 시부카와 츠네히로(澁川常次郎)이다.” (강조는 필자)-『병합후의 인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7, p.75.

진엽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방문 기념품인 동시에, 자신의 여행과 관련된 간단한 메모나 안부를 서신란에 적어 친지들에게 보내는 매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사진엽서의 제작은 희귀한 일이 되었다.

식민지기에 제작된 인천을 소재로 한 사진엽서의 자료 규모는 파악된 바 없으나, 현재 필자가 직접 확인한 자료량을 참고로 감안하면 약 1,000여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진 엽서는 그 비중으로 보아 인천항의 풍경과 축항시설(30%), 월미도 유원지(23%), 인천 시가지 풍경과 근대 건축물(18%), 공원 (15%) 등의 순으로 열거할 수 있는데 항구도시와 근대 상업도시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으며, 월미도와 같은 임해 관광시설, 각국공원과 같은 근대적 도심공원으로서의 특징도 중요한 강조점이다.

구분	확인 자료	비율
시가지풍경과 건축물	94	18%
인천항 풍경과 시설	154	30%
월미도 및 송도 유원지	116	23%
공원	79	15%
제물포해전	39	8%
풍속 기타	29	6%
소계	511	100%

표 2 〈인천사진엽서의 유형과 분석대상 자료현황〉 (2010년)

제물포해전(Battle of Chemulpo) 관련 엽서는 1904년 일본해군이 제물포에 기동중이던 러시아 전함 2척과 상선 1척을 포위 공격하여 침몰시킨 전투장면을 내용으로 제작한 각국의 사진엽서들이 다. 이 전투는 러일전쟁 전체로 볼 때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없는 국지전에 불과하지만 러일전쟁의 개전을 알리는 첫 전투였다는 점에서 교전 당사자였던 러-일 양국은 물론, 교전장을 내준 조선과 청나라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전투장면을 담은 이미지를 대량으로 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천의 풍속과 관련된 이미지의 자료의 비중은 낮는데, 이는 인천을 일본이 식민지에 건설한 근대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사진 엽서의 유형별 특성

3.1 시리즈 엽서와 장소 선택

인천 사진 엽서에서 주로 사용된 소재적 특성은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항구도시의 기반 시설인 항구와 시가지 풍경, 근대 건축물에 집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은 시리즈 엽서에 사용된 장소를 분석하면 더 분명해 질 것이다.

수집된 8종의 시리즈 엽서에 재현된 장소를 분석해보면, 월미도가 32, 인천부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15, 인천항 14, 인천 시가지 및 중심가 10, 인천 신사(神社) 6, 만국공원 4회, 기타 9의 빈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장소가 집중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이들 장소가 인천방문객들의 주된 관광 코스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총독부는 20년대 중반부터 관광부흥정책을 입안하고 조선 각지에 일본인이 여행할만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월미도는 조선총독부와 만선철도회사(滿鮮鐵道會社) 관광진흥 정책을 기반으로 개발이 본격화되어 중부지방의 임해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조탕과 해수욕장, 호텔과 동물원 등의 시설을 갖춘 월미도는 중부권의 휴양지로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된 축항시설과 유럽인들의 주거용 건축이나 공원 등도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인천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될 당시 인천 방문자들의 주된 방문 장소는 월미도와 인천축항이었다.

관광안내와 기념품으로 제작된 인천 이미지에서 소재는 개발된 자연 풍경과 이색적인 근대 시설에 집중되고 조선인의 거주지나 일상은 배제되었다. 『개벽』지의 기자는 외형적으로 인천이 동양 굴지의 무역항으로 성장하고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천의 조선인들은 더욱 궁핍해가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엽서에서 인천은 낙원의 이미지로 재현되며 낭만성이 강조된다. 인천항과 축항시설, 변화한 시가지는 식민 정책이 성공한 신화의 배경이며 도시의 미래를 약속하는 낙원의 이미지를 띠어가고 있는 동안,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화평동과 송림동 일대에는 ‘토막(土幕)’이 늘어가고 있었다. 식민지기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사진엽서에 조선인의 주거나 일상을 볼 수 있는 예는 거의 없는 반면 식민지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한 권력 기구(인천부청사,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건물, 금융기관(제일은행, 18은행, 58은행)등 근대 건축물의 위용과 미관을 강조하는 자료가 많다. 이러한 특성은 인천의 도시 이미지로 지금도 반복 재현되고 있다.



3.2 기념엽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

‘기념’ 문화는 근대 국민 국가가 국가와 관련된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국가적 행사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의 권력을 표상하기 위한 동상건립, 기념 공원 조성, 기념비 등과 같은 다양한 기념물들이 고안되었다. 기념엽서는 이러한 기념물을 인쇄매체를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수단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지배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엽서를 발행하였는데, 식민통치가 시작됨을 경축하는 시정(始政) 기념엽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⁴⁾

인천이 소재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념엽서는 1908년에 〈개항25주년기념회〉에 의해 발행된 ‘개항 25주년 기념엽서’이다. 개항25주년 기념엽서의 도안은 일반 사진엽서들과 달리 한적한 인천 과거 사진을 강조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여 그 변화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념엽서들의 바탕에는 화려한 원색 바탕위에 일장기나 태양, 국화문양과 같은 일본의 국가적 상징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인천의 과거 이미지로는 개항당시의 제물포 포구, 개항 10년의 인천항 부두, 인천 감리서 건물 등이 사용되었으며, 인천의 발전상을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축항공사장, 인천항의 화물 하역 작업 광경, 확장된 인천 시가지 전경 등이 사용되었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이미지의 배치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 이미지는 내려 보는 시선(high-angle)이 적용되고 현재의 이미지는 올려 보거나(low-angle) 눈높이에서 본 시선(eye-angle)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선의 차이는 이미지의 내용이 갖는 대비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기념엽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일본 관리들의 사진을 담은 것이다. 이토(伊藤博文) 통감, 하나부사(花房) 궁내차관, 시노부(信夫) 인천 이사청 이사관, 미야모토(宮本又七) 세관장, 도요다(豊田)거류민단장 등이다. 이토 통감과 하나부사 차관은 인천개항을 실현시킨 주역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시노부이사관과 미야모토 세관장은 인천의 실질적 지배자들이었고 도요다 거류민단장은 인천 거주 일본인들에게 개척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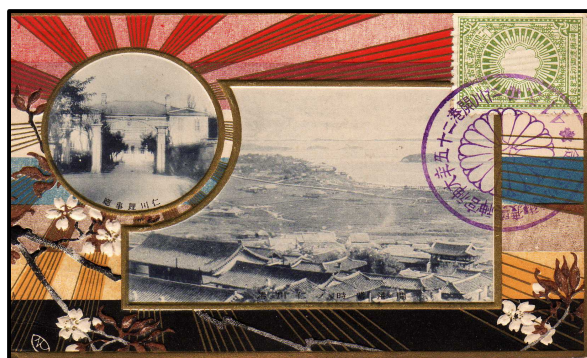


그림 1 〈인천개항25년 기념엽서: 개항당시의 인천감리서와 인천이사청〉

4)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pp.1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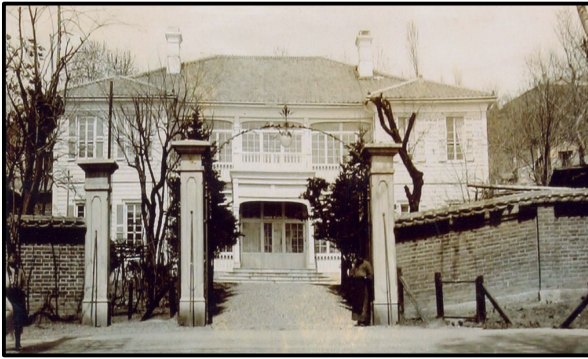


그림 2 <인천이사청>



그림 3 <개항당시 인천항과
감리서:『인천개항25년사』1908>

<그림11>에서 사각형 안 사진은 1883년 당시의 제물포와 조선 정부가 개항장 관리를 위해 설치했던 인천감리서이다. 원형 속의 건물은 1908년 당시 일제의 행정기관이었던 인천 이사청이다. 이 사진엽서 속에서 조선과 일본은 과거와 현재라는 의미로 치환되고 있다. 인천 이사청은 히노마루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사방에 밝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중심인 반면, 인천 감리서는 어둠에 잠긴 과거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이 기념엽서에 사용된 사진의 촬영 각도를 보면 인천 감리서는 언덕위 쪽에서 건물 뒷면을 내려다 본 것이며 이사청은 건물 정면에서 로우앵글로 촬영된 것이다. 이런 앵글 효과로 인천감리서는 전통 한옥처럼 보이며 감리서 앞쪽에 펼쳐진 제물포 경관은 한적한 시골과 같다. 피사체를 발아래 둠으로써 대상에 대한 지배감이나 우월감을 은연중에 느낄 수 있는 시선의 배치이다. 동일한 대상을 다른 앵글로 촬영한 이미지를 비교하면 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념엽서 속의 인천항 사진에서 개항장에 거주했던 한국인의 민가 주택이 드러나지 않는다. 응봉산 동쪽 기슭인 내리(內里)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마을이 사각으로 처리된 탓이다.

아래의 이미지는 같은 시기에 프랑스인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한 데생화 <Yamen de Tchémoulpo:제물포의 監理衙門>이다. 이 그림에서 인천감리서는 조선의 전통적 관청 건물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감리서 아래에 거주했던 민가의 풍경도 제대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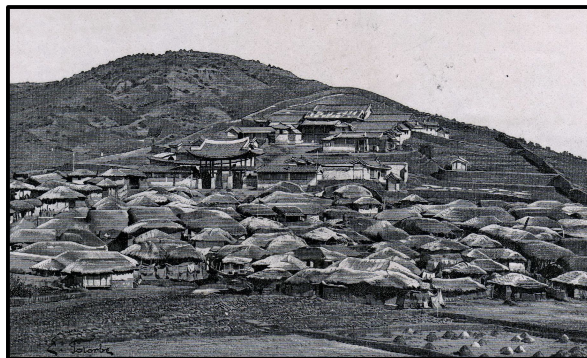


그림 4 <Yamen de Tchémoulpo:제물포의 監理衙門>

이미지 대비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는 필연적이며 당위로 된다. 이제 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는 고귀한 미션으로 바뀌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식민지 지배는 ‘침략’ 이 아니라 ‘시혜’ 인 것이다.

3.3 제물포 해전 엽서: 신화(神話)의 탄생

1904년 2월 9일 인천외항에서 일본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기습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전투를 제물포 해전(Battle of Chemulpo) 혹은 인천해전이라고 부른다.⁵⁾ 제물포 해전은 러일전쟁의 서막이었다. 러일전쟁 서막인 인천해전의 승리는 일본인들에게 감격스런 신화의 원천이 되었다. 인천해전은 무수한 무용담, 전쟁 영웅, 기록사진, 기록화로 제작되었으며 또 그림엽서의 형태로 제작 판매되었다. 청일전쟁기에 석판화가 수행했던 역할은 러일전쟁기에 이르면 차츰 사진이 대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러일전쟁의 전투장면과 전쟁영웅을 다룬 기록사진집이 전쟁 중에 혹은 전쟁 이후에 무수히 발간된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림 5 「仁川之海戰」



그림 6 「西公園 千代田의 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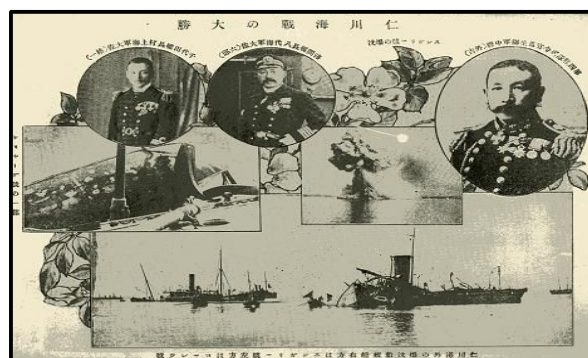


그림 7 「仁川海戰の大勝」

5) 일본인들은 이 전투를 ‘仁川沖海戰’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15〉는 인천해전이 벌어진 수중 풍경을 소재로 한 상상도이다. 부러진 마스트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러시아 병사들의 비참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6〉은 인천해전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 만국공원에 세워진 일본 전함 치요다의 마스트, 일본인들은 1905년 2월 9일을 기해 이날을 ‘인천의 날’로 제정하여 성대한 축제로 기념하게 했다. 〈그림 17〉은⁶⁾ 『일로전사 日露戰史』에 수록된 인천해전 승전 사진화보이다. 폭파 침몰한 러시아 상선 송가리호, 코레에츠호, 파괴된 와리야끄 호의 일부를 배경으로 제4함대 사령관 우리유(爪生)해군중장을 비롯하여 공훈을 세운 아사마호 함장 야시로(八代) 해군 대좌, 치요다호 함장 무라카미(村上)해군 대좌의 사진을 뱃꼴로 장식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8 〈仁川大海戰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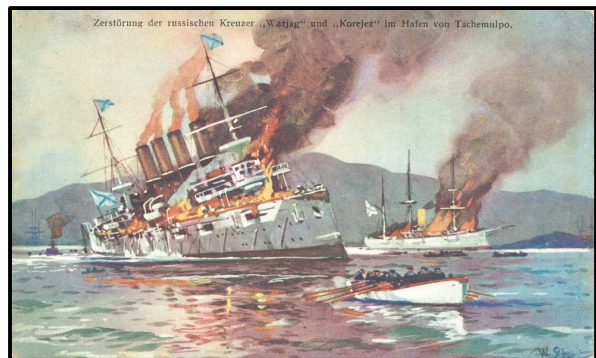


그림 9 〈침몰하는 러시아 전함〉(독일)

〈仁川大海戰之圖〉는 인천해전 당시 인천항으로 상륙한 일본 육전대가 러시아 군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담고 있다. 석판화로 제작되어 배포된 그림을 다시 엽서로 만든 것이다. 일본 육군의 상륙은 해상전투 전날인 1904년 2월 8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1시에 완료되었으며, 상륙작전 당시 육상에서 러시아군과의 교전이나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측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

1904년 초부터 인천항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긴장감은 고조되었지만 실제 적대행위는 2월 9일 오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 해군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제국 함대의 우리유(爪生) 소장이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에게 12시까지 제물포항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은 2월 9일 오전 7시경이었고 이 편지가 바랴크호에 공식 접수된 것은 오전 9시30분이었다.⁸⁾ 〈仁川大海戰之圖〉에 담긴 러-일간 육상 전투 장면이 실제와는 무관한 상상도임이 드러난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측 전쟁관련 이미지 중 상당수는 석판화로 제작되어 언론매체의 화보로 사용되거나 그림 자체로 판매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전투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한 경우도 있지만 전보문을 통해 전해진 전황을 기초로 극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제작한 경우도 많다.⁹⁾ 이

6) 『日露戰史』제1권. 東京: 博文館, 1906.

7) 仁川府編, 『仁川府史』, (1933), p. 504.

8) 심현용, 「1904년 대한제국 해안에서 러시아 선박 1급 순양함 〈바랴크〉호와 포함 〈코레이츠〉호가 일본함대에 맞서 벌인 전투」, 『인천학연구』 제5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6, pp. 270-1.

9) 석판화 「仁川外港日魯第一海戰光景」(1904)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런 판화로 제작된 전쟁도에는 자국 군대의 용맹과 적국의 지리멸렬함을 대비하는 패턴이 발견된다. 이런 전쟁 이미지들의 대량 유포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게는 적개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불어넣는 동시에 후방의 국민들에게는 군국주의의 환상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침몰하는 러시아 전함〉은 독일에서 제작된 그림엽서로 러시아 전함 바리야그호와 카레예츠호가 일본함대의 함포사격으로 불길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의 바리야그 호는 선체가 기울어 침몰 직전에 있어서 수병들이 소형 보트로 탈출하고 있다. 이 그림은 두 전함의 특징과 인천해전의 상황을 충실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경이나 디테일 묘사에서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그림의 앞쪽은 바리야크호이다. 이 순양함의 선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좌현 흡수선(吃水線) 아래 부분을 관통당해서 왼쪽으로 기울어 갔고 결국 이로 인해 침몰했다.¹⁰⁾ 뒤쪽에 보이는 전함은 러시아 포함 카레예츠호이다. 카레예츠호는 당시에 전함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정도의 포격을 당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측이 이 전함이 일본함대에 노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약고를 폭발시켜 침몰시켰을 뿐이다. 이 역시 당시의 상황을 더 극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0 〈침몰하는 바리야크, 부상병을 구조하는 이탈리아 순양함 엘바〉(러시아)

당시 제물포해전과 관련하여 러시아측은 다른 방식으로 신화를 만들어냈다. “불리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장렬하게 싸운 것과 적에게 전리품을 넘기지 않기 위해 함선을 폭파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실제로 제정러시아는 제물포해전이 끝나고 러시아로 귀국한 장병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결시켜 열렬한 환영식을 베풀고 전병사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했다. 러시아 측에서 발행한 인천해전 관련 사진엽서에서 발견되는 정서는 그러한 영웅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비에트 러시아 역시 제물포해전 관련 영화, 노래등을 제작하여 국가주의를 선전하는 데 사용하였다.

10) “이때쯤(12시 45분경) 커다란 포탄이 함선의 왼쪽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물 속에 있는 부분을 꿰뚫었다.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바닷물이 밀려들었고 세 번째 보일러실의 연료실까지 가득찼다. 선임장교 수부장인 하리코프스키와 함께 재빨리 손을 썼다. 물을 계속 퍼낸 덕에 비록 물 높이는 점점 낮아 졌지만 순양함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심현용 p. 24.)

4. 결론

일본인들에게 인천은 식민지 경영의 실험실이었으며,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물증’이었다. 그들은 인천에서 실험된 식민지 경영의 경험을 조선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아시아로 확대하려 했다. 이러한 의도는 실제의 도시 행정에서는 물론 각종 인천 안내서 편찬이나 사진엽서의 제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식민주의자들은 현재의 성공을 강조하기 위해 개항당시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식민지 모순의 결과로 나타난 조선인의 생활상을 무시하거나 축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의해 편찬된 『仁川事情』(1893), 『신찬인천사정』(1898), 『인천변창기』(1903), 『인천 개항25년사』(1908), 개항 50주년사에 해당하는 『仁川府史』(1933)와 같은 인천안내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인들은 ‘만목소조(滿目蕭條)한 한촌이었던 인천을 서해안 동양 굴지의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한다. 식민정책의 성공신화를 낳은 인천의 과거는 ‘무인지경’ 이거나 ‘황무지’로 표현하여 극적인 대비 효과를 보여주려고 했다. 일본인들이 인천을 묘사한 글이나 재현한 인천에는 주로 경인 철도 북쪽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던 식민지 민중들의 생활경관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천 사진엽서, 특히 일본인들이 제작한 경우에는 전통적 주거경관이나 풍속과 관련된 소재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인천이 소재로 사용된 기념엽서에는 개항당시의 인천과 개항후 발전상을 대비해 보임으로써 식민정책의 정당성을 전선하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20-30년대에 발행된 엽서는 관광진흥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이 추가되었다.

러일전쟁 당시 인천 외항에서 해전을 벌였던 일본과 러시아에게 인천은 전쟁신화의 장소였다. 일본에게 제물포해전은 세계적 제국과 싸워서 이긴 최초의 전투였으며, 러시아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투하여 ‘적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은’ 위대한 전투였다. 이러한 태도는 사진엽서나 그림엽서의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자국의 관점에서 동-서양이 벌인 충돌을 극화하여 묘사한 이미지들을 제작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타자들이 제작한 도시의 이미지가 그 제작주체의 시선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들의 역사적 맥락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실제처럼 사용되거나 반복 재생되는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식민지 기간에 제작된 이미지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치밀하게 분석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사진엽서는 그 자체로 매체자본 상품이었으며, 제국의 정치 경제적 정책에 긴박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재현물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제작된 이미지는 제품이자, 행동수단이자 의미’라는 레지스 드브레의 지적처럼 앞으로 식민지기의 이미지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의 제작, 소비, 사용 방법을 검토하는 기본적 질문, 그것이 전달하려는 의미와 연관된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묻은 상징적 질문, 그리고 어떤 현실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묻은 정치적 질문을 동시에 던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 김창수, 「인천발 영웅서사와 그 기원」, 『작가들』 2005.
- 김창수, 「인천의 전쟁표상과 그 망팔리테」, 『작가들』, 15호, (2005년 겨울호)
- 박진한, 「일본의 전쟁기념과 네오내셔널리즘」, 『역사교육』 제98권, 역사교육연구회, 2006.
- 심현용, 「1904년 대한제국 해안에서 러시아 선박 1급 순양함 〈바라크〉호와 포함 〈코레이즈〉호가 일본함대에 맞서 벌인 전투」, 『인천학연구』 제5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6.
- 하세봉, 「식민지 이미지의 형성과 멘탈리티」, 『역사학보』 제186집, 역사학회, 2005.
- 레지스 드브레 저, 정진국 역, 『이미지의 삶과 죽음』, 시각과 언어, 1994.

Ⅱ. 스테레오뷰 사진과 지도

1. 인천 스테레오뷰 사진

스테레오뷰 사진은 입체경(stereoscope)을 가지고 감상하기 위해 제작한 입체사진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인물과 풍경사진을 입체로 보는 것이 유행이었다. 입체사진의 원리는 좌우 약 60~70mm 시차(사람의 눈동자 사이와 비슷한 거리)를 두고 같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 두 장을 입체경 위에 올려놓고 보면 전경과 원경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는 박스 형태의 입체경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식민지를 비롯한 외국 풍경이나 풍속을 담은 입체사진이 불티나게 팔렸다. 키스톤 뷰 컴퍼니(Keystone View Company)나 언더우드 앤 언더우드(Underwood & Underwood) 같은 회사들이 입체사진의 대표적 제작사였다. 인천 풍경과 풍속을 담은 스테레오뷰 사진은 20종 내외가 확인되고 있다. 남아 있는 사진들은 대체로 제물포항구의 부두와 부두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모습, 제물포 시가지와 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들이다. 일부 사진은 한국적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연출된 경우도 발견된다.

제물포 스테레오뷰 목록

	제 목	규격 (cm)	제 작	시기	내 용
1	Chemulpo City and Harbour at low tide	10 x 17.7, BW	George Rose(AUS.)	1904	만국공원에서 바라본 청일조계지 경계선 일대와 인천항 풍경.
2	Chemulpo the principal port of Korea	9 x 17.7, BW	B.W. Kilburn(USA)	1903	만국공원 정상에서 인천항을 바라보는 사람들
3	A Market Scene at Chemulpo	9 x 17.7, BW	Universal Photo Arc Co.(USA)/C.H. Graves	1902	C.H.Graves 가 촬영한 스테레오 뷰 사진 (팻죽장수)
4	Sampling beans on the street, Chemulpo	9 x 17.7, BW	Universal Photo Arc Co.(USA)/C.H. Graves	1903	C.H.Graves 가 촬영한 스테레오 뷰 사진
5	Landing place and harbor of Chemulpo	9 x 17.7, BW	Universal Photo Arc Co.(USA)/C.H. Graves	1903	C.H.Graves 가 촬영한 스테레오 뷰 사진
6	Junks loaded with bales with dried fish	9 x 17.7, BW	Keystone View co.(USA)	1903	Underwood & Underwood사 촬영 제물포 사진
7	West to harbour entrance, Chemulpo	10 x 17.7, BW	Underwood & Underwood	1904	‘위기의 동아시아’, 위기의 중심지가 인천항임을 보여주는 사진임. Hapers Weekly 화보사진과 동일

	제 목	규격 (cm)	제 작	시기	내 용
8	Houses in the poor quarter, Chemulpo	10 x 17.7,BW	Underwood & Underwood	1904	한국인거주지가 식민도시 제물포의 빈민지구임을 보여주는 자료임
9	Looking north along wharf to British Consulate 1	10 x 17.7,BW	Underwood & Underwood	1904	분주한 제물포 부두 1
10	Looking north along wharf to british Consulate 2	10 x 17.7,BW	Underwood & Underwood	1904	영국영사관 언덕쪽으로 본 분주한 제물포 부두 2 (옛장수와 행상)
11	Primitive Life in the "Hermit Kingdom"	10 x 17.7,BW	Underwood & Underwood	1904	제물포 길가에서 키로 보리를 까부르는 모습
12	Busy harbor of Chemulpo	10 x 17.7,BW	Underwood & Underwood	1904	제물포 부두와 잔교 부근의 모습



Houses in the poor quarter, Underwood&Underwood (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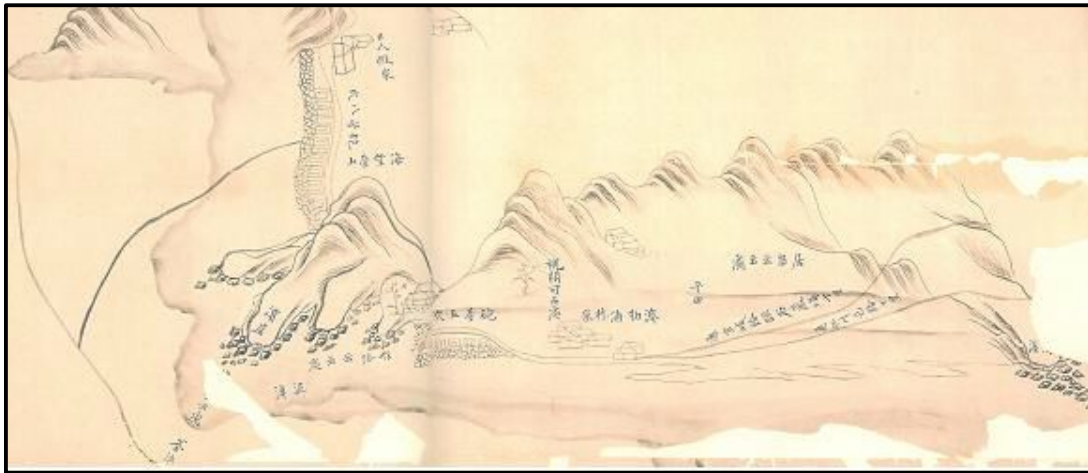


Junks loaded with bales of dried fish, Underwood&Underwood (1904)

스테레오 뷰 사진은 한국의 자연 풍경이나 도시경관, 한국인의 풍속과 풍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시각은 풍속지적이며 이그조티시즘(exoticism)의 정서가 다분하다. 이국적 풍경에 대한 동경과 미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스테레오뷰 사진의 주요 제작국가가 일본이나 청나라와 같은 조선지배와 직접적 이해 당사국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제3국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레오뷰 사진은 당시에 여러 매체에 수록되거나 유통된 이미지에 비해 해상도도 높으며 표면을 코팅처리하였기 때문에 보관상태도 좋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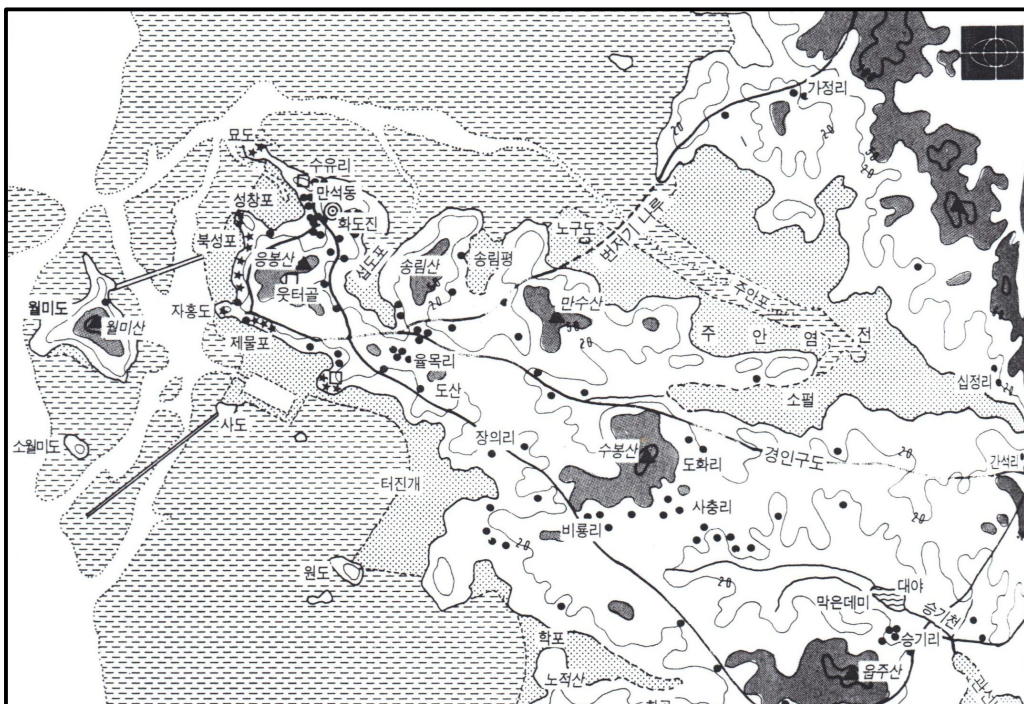
Ⅲ. 지도와 그림지도

1. 1883년 인천제물포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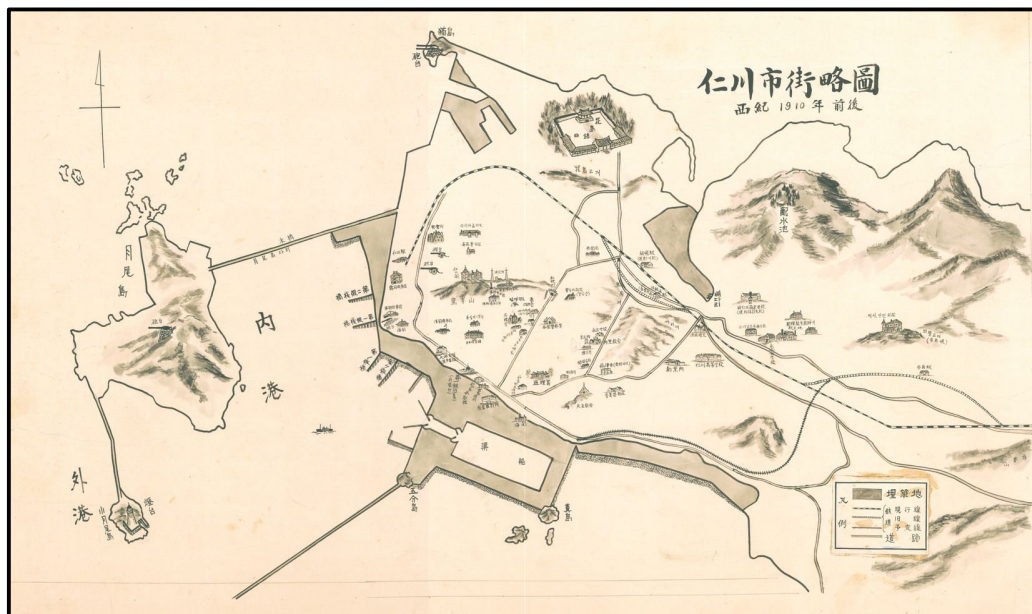
〈인천제물포도형〉(부분), 1883년경, 채색필사본, 69.9×98.2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개항직전 제물포 지형을 전통적 지형도 제작방식인 산점투시 방법으로 그린 그림지도임.

2. 개항이전 인천주요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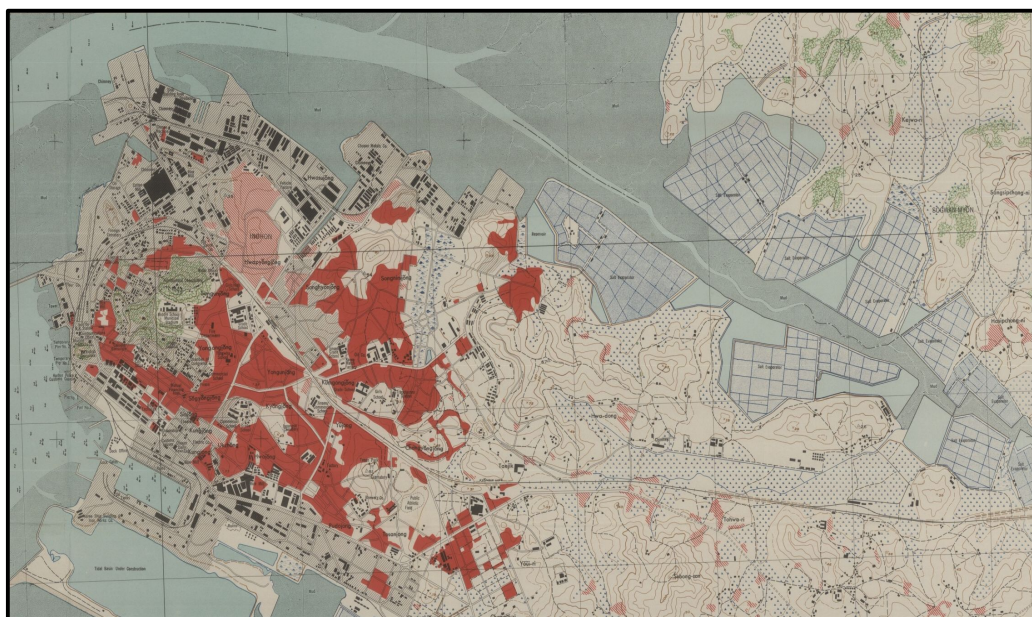
최영준이 복원한 개항기 인천주요부 지도, 북성포와 성창호, 섬도포, 주안포, 막은데미 등으로 이뤄진 인천 해안지형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음.

3. 1910년 경인천시가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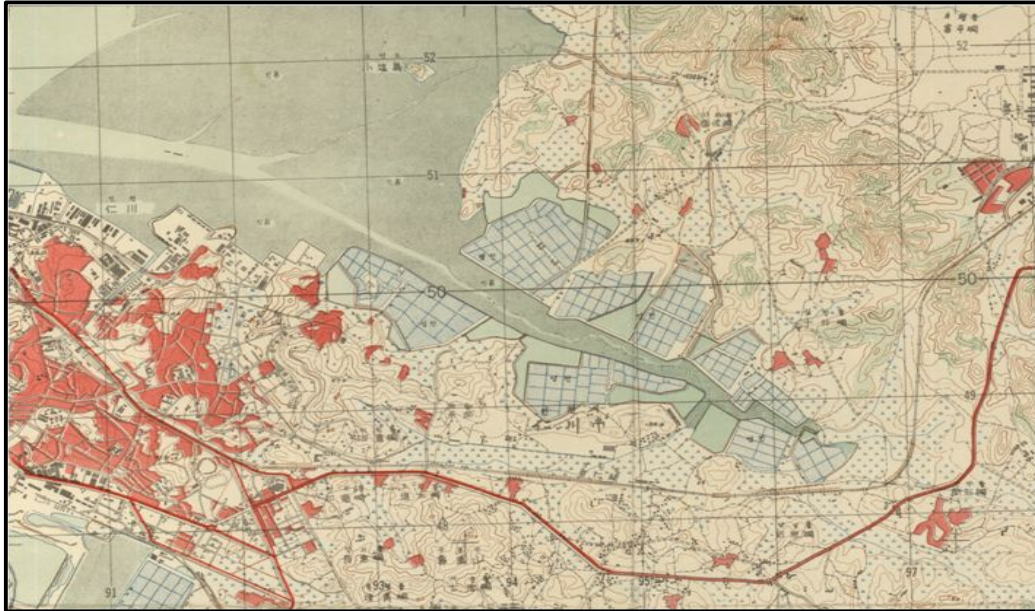
「1910년전후 仁川市街略圖」 정한용(鄭漢鎔)이 1959년에 『개항과 양관역정』의 참고도로 제작한 상상화로 식민지기 인천의 도시 경관을 이해하는 데 요긴한 그림 지도임. 개항기 해안포대의 위치, 주요 양관의 위치, 수문통과 배다리의 위치가 나타나 있음.

4. 1950년 인천지도(미군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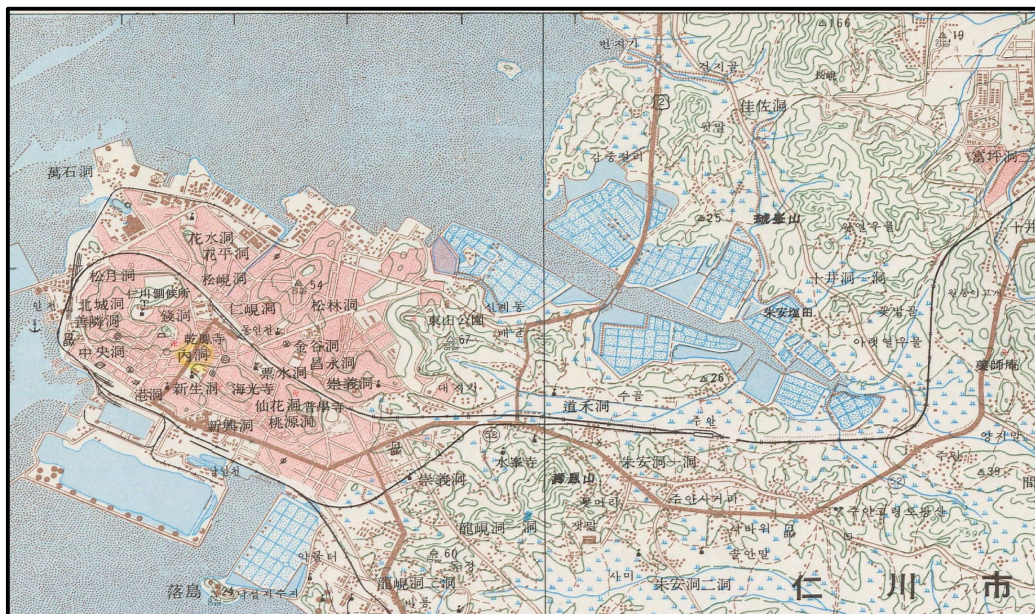
1951년 미군 극동사령부 공병대 제작 군사지도(1/12500). 인천의 주요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 주안염전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으며, 원도(낙점)이 연록화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음.

5. 1956년 인천북동부지도(군사지도)



1956년 육군공병측지부대가 제작한 인천북동부 지도로 축척은 1/25000. 인천교 공사 이전의 모습. 1950년대 주안염전, 남구의 대직동, 사충동, 송내동과 같은 사라진 지명이 보임.

6. 1963 인천지도



1963년경 인천시 지도 (육군측지부 편집, 1970년 국립건설연구소 발행, 축척 1/50,000)
경인철도가 직각으로 흰 동암역 왼쪽으로 만입한 바다의 염전지대가 펼쳐 있다.

인천도시인문학 DB구축 결과 및 향후계획

1. 사업방향

- (1) 인천 도시인문학 관련 자료 및 연구 결과를 수집·분류하여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2)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는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도시 관련 연구자, 기관, 일반시민들에게 인천 도시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함

2. 2012년 사업내용 및 성과

- (1) 2012년 사업내용
 - 도시인문학 자료의 분류체계 수립
 - － 인천을 도시인문학을 통해 재조명하기 위한 분야별 분류체계 수립
 - 자료 입출력 프로그램 설계
 - － 주제별 자료를 수집, 정리 및 관리할 수 있는 입출력 폼 설계
 - 도시인문학DB 자료 입력
- (2) 2012년 사업성과
 - 도시인문학DB 분류체계 수립
 - － 도시인문학DB는 도시 문화자원의 문화·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써 다양한 도시연구사업의 바탕이 되는 도시 관련 기초 정보를 지원하는데 효율적인 구조를 지향함
 - － 예술, 지명, 해양 등의 도시가 가진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도시 경관 이미지 및 지도, 시민기증 자료, 역사, 인물, 문헌 등을 통해 인천의 도시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구조화함
 - － 도시인문학DB 분류체계는 대분류 7개, 중분류 28개, 소분류 62개(특별히 ‘해양’은 세부유형 16개로 분류함)로 구성됨

〈도시인문학DB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문화자원	민속	생업, 신앙, 주거생활, 기타	
	구비문학	자연지명전설, 인물전설, 농경민요, 어로민요, 기타	
	무속	무속신앙, 무가, 기타	
	지명	동지명, 면지명, 읍지명, 기타	
	예술	문학, 음악, 미술사진, 공연예술, 문화단체, 문화원, 기타	
	해양	도서사	섬, 기타
		해양사	해양사, 해전사, 해양도시사, 기타
		어로생활사	어촌사회, 어촌문화, 어로환경, 어로기술, 항해기술, 해양의례, 해양민요, 해양설화, 해양문화, 기타
도시의 변화	사진	엽서, 사진, 우표, 기타	
	지도	고지도, 현대지도, 기타	
	도판 및 기타	도판, 기타	
시민생활사	구술자정보	—	
	구술자료	—	
	시민기증자료	사진, 문헌, 개인기록물, 기타	
역사	시대별		선사시대, 고대국가, 고려왕조, 조선왕조, 문호개방, 일제강점기, 광복이후
인물	전통인물	—	
	근현대인물	—	
	가공인물	—	
문헌	신문기사/잡지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건축, 풍속, 교육, 언론, 출판, 종교, 체육, 역사, 기타	
	외국인 기행문		
	보고서		
인천기타	산업경제	농림업, 수산업, 광공업, 전력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상업, 교통통신업, 기타	
	정치사회	정치, 행정, 사법, 기타	
	기타	—	

- 자료 입출력 프로그램 설계
 - － 도시인문학DB 입력화면, 출력화면 디자인 (발표문 참고)
- 수집된 자료
 - － 인천광역시 출판물,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소장자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자료,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구술채록 수집 자료
- 도시인문학DB 작업 내용과 분량
 - － 총 2,234항목 : 엑셀 레코드 2,234개
 - － 이미지(JPEG) 665건 : 508.75MB

〈도시인문학DB 작업 내용〉

구분	작업 내용	분량
『인천광역시사』	· 인문학DB 분류틀에 따라 내용 재배치 · 원자료 내용 및 형식 검토(데이터 클리닝)	2,035개
『도서지』, 『인천대관』 『인천개항100년』	· 주요 이미지 스캔 및 분리, 한자독음 주해 작업 · 항목명 부여 작업	658건
시민기증자료	· 시민기증자료 스캔 및 한자독음 주해 작업	7건
『인천의 과거와 현재』, 『일러전쟁사』, 『인천해전사』	· 인천 근현대사 관련 자료 일본어 번역	원고지 934.8매

〈분류항목별 입력 자료량〉

대분류	중분류	항목 수	
문화자원	민속	31	1240
	구비문학	144	
	무속	41	
	지명	877	
	예술	94	
	해양	53	
시민생활사	구술자정보	0	7
	구술자료	0	
	시민기증자료	7	
도시의 변화	사진	253	289
	지도	36	
	도판 및 기타	0	

대분류	중분류	항목 수	
역사	선사시대	13	178
	고대국가	15	
	고려왕조	21	
	조선왕조	28	
	문화개방	23	
	일제강점기	62	
	광복이후	16	
인물	전통인물	244	399
	근현대인물	155	
	가공인물	0	
문헌	신문기사/잡지/기사	110	110
	외국인 기행문	0	
	보고서	0	
인천기타	산업경제	11	11
	정치사회	0	
	기타	0	
총 계		2,234건	

3. 2013년 사업계획

- (1) 입출력 프로그램 설계 수정 및 구축
- (2) 인천 근현대사 사료, 해양문화 관련 자료 가공 및 DB탑재
 - 인천의 경관 관련 이미지 수집, 분류, 해제, 입력 : 400건
 - 인천 신문기사 잡지 기사 목록 입력(1차분 개항기) : 5,000건
 - 인천 경관 묘사 외국인 기행문, 보고서 자료 번역 입력
 - 도시 변화 관련 도판 및 고지도 입력, 해제
- (3) 2013년 도시인문학DB 구축 사업 보고회

4. 2013년 도시인문학DB 과업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출력 플랫폼 구축								
도시인문학DB 원자료(경관이미지, 지도 등) 수집 - 인문학DB 원자료 수집 및 분류 - 자료 선택, DB탑재를 위한 자료 가공 난이도 확인								
도시인문학DB 가공 - 경관이미지, 도시지도, 외국인 기행문 번역 등 - 경관이미지 400건/신문기사 5000건/경관묘사 기행문 번역 50건/ 도시변화 관련 도판 및 고지도 100건								
도시인문학DB 탑재								
2013 도시인문학DB 구축 사업 종료								
※ 최신 자료 갱신, 도시인문학센터 데이터뱅크의 효율화 고민(ex. 운영 및 관리 매뉴얼 등) 필요								

첨부 1. 도시인문학DB 입력화면 구조

항목ID		R01N00001					
항 목 체 계	[구분] 대분류	▼ 문화자원 (문화자원/도시의 변화/시민생활사/역사/인물/문헌/인천기타)					
	[구분] 중분류	▼ 민속 (민속/구비문학/무속/지명/예술/해양)					
	[구분] 소분류	▼ 신앙 (생업/신앙/주거생활/기타)					
	[구분] 세부유형	※ 중분류 '해양'에만 세부유형 있음					
	[구분] 지역	▼ 옹진군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기타)					
항목명(한글)		배연신굿					
항목명(한자)		▼ 직접입력/입력없음					
항목명(외국어)		▼ 영어/일본어/불어/러시아어/직접입력/입력없음				ex) apple	
시대		▼ 전체/선사시대/고대국가/고려왕조/조선왕조/문화개방/일제강점기/광복이후/입력없음					
미디어 자료 (첨부파 일)	사진	[추가하기]	제목		출처		
	동영상	[추가하기]	제목		출처		
	음성	[추가하기]	제목		출처		
	기타	[추가하기]	제목		출처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사, 2002					
키워드		민속, 신앙, 풍어제, 옹진군, 영신, 연신, 당, 당할머니, 배연신굿, 임경업 ※ 키워드로 검색이 예상되는 본문에서 사용된 개념을 중심으로 5개~15개 추출					
관련항목		▼ 직접입력/입력없음					
내용		설명	옹진군 일대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 그리고 풍어(豊漁)를 기원하기 위하여 벌이는 굿을 배연신굿이라고 한다. '연신'은 '영신(靈神)'으로 생각된다. 이 굿의 순서에도 당으로 올라가 당할머니를 맞아서 배에 모시는 과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연신굿'은 '배의 신을 맞아들이는 굿'이라는 뜻이다. 다음은 이 굿의 유래에 대한 민담이다. 우국충정에 뛰어난 무인이요 무장이었던 조선시대 임경업(1594~1646) 장군은 당시 친명반청(親明反淸)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친명파에 속하여, 명나라에 대한 명분을 끝까지 지킨 인물이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으로 ...				

첨부 2. 도시인문학DB 출력화면 시안

■ 게시판 화면 (자료 출력화면)

문화자원 ▶ Home > 인천도시인문학DB > 문화자원

인천도시인문학DB >> 전체 | **민속** | 구비문학 | 무속 | 지명 | 예술 | 해양

통합검색

-종분류-	▼	-소분류-	▼	-세부유형-	▼	-지역-	▼	항목명	▼	검색
-------	---	-------	---	--------	---	------	---	-----	---	----

주제별검색

※ select box 1 : 중분류 검색, 소분류 검색, 세부유형 검색, 지역 검색
 ※ select box 2 : 항목명, 키워드 검색

>문화자원
 도시의 변화
 역사
 인물
 문헌
 인천기타

번호	항목명	중분류	소분류	지역
1	배연신굿	민속	신앙	옹진군
2				
3				

◀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

■ 상세 화면 (자료 출력화면)

문화자원 ▶ Home > 인천도시인문학DB > 문화자원

인천도시인문학DB

통합검색

주제별검색

>문화자원
 도시의 변화
 역사
 인물
 문헌
 인천기타

항목명
배연신굿
중분류
민속
소분류
신앙
지역
옹진군

내용

옹진군 일대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 그리고 풍어(豊漁)를 기원하기 위하여 벌이는 굿을 배연신굿이라고 한다. ‘연신’은 ‘영신(靈神)’으로 생각된다. 이 굿의 순서에도 당으로 올라가 당할머니를 맞아서 배에 모시는 과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연신굿’은 ‘배의 신을 맞아들이는 굿’이라는 뜻이다.

 다음은 이 굿의 유래에 대한 민담이다.

 우국충정에 뛰어난 무인이요 무장이었던 조선시대 임경업(1594~1646) 장군은 당시 친명반청(親明反淸)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친명파에 ...

출처
 인천광역시사, 2002

관련항목

첨부파일

TOP	목록으로
-----	------

 ※ 항목명 : ‘한글’ ‘한자’ ‘기타외국어’ 순으로 보여주기
 ※ 첨부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제4회
도시인문학
세미나



Ⅱ. 도시경관 관점에서 본 인천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 토론문

도시경관 관점에서 본 인천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이인재(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부장)

1. 총론

발제자가 제안한 인천의 근대시기 도시경관에 대한 자료인 사진엽서, 지도 등 매체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사업은 도시경관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의 원형경관(原型景觀)¹⁾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일제시기 또는 이후 도시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도시경관의 변화양상을 이해하는 데, 나아가 도시계획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2. 사진엽서에 나타난 도시이미지 대상

사진엽서의 대상을 자료량에 따라 인천항의 풍경과 축항시설, 월미도유원지, 시가지풍경과 근대 건축물, 공원 순이었다는 금번 조사결과는 인천 도시이미지를 고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큼.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2010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천의 이미지 조사결과²⁾ 공항, 항구, 바다, 월미도, 송도 순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시 이미지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음

3. 기념엽서에 나타난 시선의 차이

인천감리서와 인천이사청에 대한 앵글효과는 도시경관에서 부각(俯角), 양각(仰角)³⁾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도시경관 분야에서 부각이 대체로 전망대 및 수변경관 분석에 적용⁴⁾되다는 점에서 건축물에 따라 달리 부각을 적용한 점은 인천감리서를 바라본 위치의 중요성을 부각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1)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p.46 원형경관은 초기부터 새로운 변화가 보이기까지의 경관을 의미함

2) 인천발전연구원(2011), 인천의 도시이미지 제고 방안 연구, p.11 인천 도시브랜드 조사결과(2010)

3) 이인재(2011),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경관조망권 확보방안 연구, p.14 시점과 대상의 상호관계는 대상을 올려다 본 양각(仰角)과 내려다 보는 부각(俯角)으로 구분함

4) 시노하라 오사무(2008), 배현미 역,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대우출판사, pp.105-107

4. 스테레오뷰 사진과 지도 자료 구축

이제까지 인천의 과거 경관을 기록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스테레오뷰 사진과 지도에 대한 자료수집은 의미있고, 이를 자료 DB로 구축하는 점이 우선 추진해야 할 일로 보여짐. 자료 구축과 동시에 매체의 의도와 연출을 감안하여 주석을 달고 의미를 살피는 논의는 의미있는 일로 판단됨.

제4회
도시인문학
세미나



Ⅲ.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자료화 구축에 대한 소견

● 토론문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자료화 구축에 대한 소견

이영욱(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외래교수)

김창수 박사의 식민지기 인천사진과 이미지자료가 “별다른 주석 없이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처럼 제시되거나 본문내용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제작 당시에는 물론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근대사 관련 이미지 자료의 부족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이미지 자료에 대한 소박한 인식이 더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인식은 식민정책에 기반을 둔 일제에 의해 제작된 인천사진은 절대적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때문에 사진에 대한 소박한 믿음 그러나 절대적 신뢰성을 보내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인천의 사진들은 “식민지 기간에 제작된 이미지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임을 유념하고 치밀하게 분석되고 비판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러나 그 “소박한 인식의 몫”이 발생하는 원인과 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사진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사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진이 보존되고 유포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생산되는 이 “소박한 인식의 몫”이 내면화되기 때문이다. 즉, 사진은 대상을 측정하고 관찰되며 분류되어, 문서함 속에 쌓이고 보관되는 또는 유통되는 아카이브체계가 사진 기록물에 대해 무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아카이브의 역사는 개인이 주도하기보다 관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교적 사진매체를 이용한 아카이브는 저비용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적은 관계로 또 자본주의 상품시장에서 이윤창출이 용이해서 심미적 취향과 결합된 사진들이 다량 유포되었다. 사진매체의 역할과 그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진은 정치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 취향과 자본의 이윤과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작된 사진이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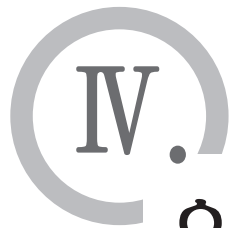
김창수박사가 예시한 사진엽서와 관광용 스테레오 스코프사진은 정확히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진으로 제작된 사진은 아니다. 물론 일제의 제국주의 의식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는 근대 자본주의상품논리가 생산한 상품으로서 사진이다. 관광엽서용 사진들은 전형적인 이국적 정취와 신비주의, 멜랑콜리를 자극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제국주의 식민정책의 많은 사진들은 철저하게 앵글뿐 아니라 유형학적 배치를 통해서 과학적 논리를 펼치는 사진들이다. 그 점에서 <인천개항25년 기념엽서: 개항당시의 인천감리서와 인천이사청>사진에 나타

나는 앵글과 촬영시점의 비교는 매우 적절하다. 〈인천해전 대승〉엽서사진은 그림과 텍스트, 사진이 결합한 몽타주효과를 보여주고 있듯이 사진이 그 자체로는 어떤 증거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치의 효과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진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성은 그대로 사진아카이브체계 속에서 대중들에게 “소박한 인식의 뭉”으로 작용한다.

사실상 사진아카이브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현안에 따라 개인의 취향 또는 정치적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근대의 자본주의 상업적 논리로 변용되어 그 목적성이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 사진의 객관적 증거의 힘은 더욱 공고하게 작용되어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무한다는 인상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비록 사회개혁의 긍정적인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근대의 사진아카이브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천은 개항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사진 자료들은 아직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인천의 근현대사를 시각적으로 재조명하고 학술연구 및 영상교육 등에 활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사진아카이브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천관련 이미지와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축하는 작업은 신중하고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살려내는 일이나 역사주의 관점의 기존 사진아카이브로 현재의 문제들을 정당화 시켜서도 안 된다. 진정한 아카이브의 순기능은 과거를 현재의 문제의식과 만나 새로운 맥락 속에 재배치시키는 일이다. 결국 사진아카이브는 어떤 주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제4회
도시인문학
세미나



인천도시인문학센터

1. 도시인문학
2. 인천도시인문학센터

1. 도시인문학

○ 인문도시의 비전과 도시인문학의 과제

도시가 그 주인인 도시인의 소외를 심화시키는 역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환경과 생태주의적 비판, 여성주의적 실천, 소수자 운동, 마을공동체 회복 운동,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도시인문학은 이러한 실천의 성과를 참조하면서 더 근원적인 문제, 즉 도시를 ‘사람의 도시(human city)’, 나아가 인본주의가 구현되는 ‘인문도시(humaine city)’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문도시’란 일반적으로 인문체험·인문강좌·인문행사 등을 통해 문학·역사·철학·종교·예술 등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비인간적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가치’ 회복을 도모하는 인문공동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인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도시를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1) 인문도시는 도시가 간직한 문화자원을 보존, 발굴,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 가치를 창조한 도시(창조 도시)
- (2) 인문도시는 도시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도시인의 문화 향유권을 확장시킨 도시(다문화주의 도시)
- (3) 인문도시는 도시의 주체인 도시인들이 각종 활동과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을 가능케 하는 도시(공동체 도시)
- (4) 인문도시는 도시인(주민)과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여 개발된 도시(참여 도시)
- (5) 인문도시는 기존의 문화자원 및 거주민의 생활문화를 지속 가능하게(sustainable) 기획한 도시(문화적 지속가능성)

○ 인문도시의 당면과제

일반적으로 도시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등과 같이 공학의 영역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도 오랜 전통을 축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 철학, 문학적 탐구는 도시계획과 설계의 기초이기도 하다. 인문학자들의 과제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문학자들은 실천적 전략을 설정하고 그 해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1) 도시가 인간주의적 장소(place)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의 주체인 도시인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문학적 관점의 도입이 요청되며 도시 문제에 대해 인문학자들은 학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2)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행정가와 도시공학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인문학자들의 일상적이고 유기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도시 계획 그룹과 인문학자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 (3)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도시인문학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 문학, 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각 도시의 인문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재원과 조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문학과 도시공학 및 정책과학이 협력하는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 (4) 도시와 지방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인문학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내 타도시는 물론 해외의 도시 연구자들과 연구의 경험을 교류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하는데 노력합니다.
- (5) 도시는 인간, 환경, 문화의 유기적 공존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 환경, 문화가 공존 발전하는 도시란 외형적 경관이나 방문자의 눈에 아름다운 도시일 뿐 아니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도시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인천도시인문학센터

○ 경 과

- 2011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 직제규정
- 2012년 1월 센터장 임명(김창수 연구위원)
-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연구원 채용
- 2012년 2월 인천도시인문학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2년 2월~12월 인천 도시인문학의 아카이브화를 위한 기초자료 입력 틀 설계 및 자료수집
- 2012년 2월 ~12월 인천시민생활사 자료 수집을 위한 구술 채록 매뉴얼 작성 및 구술 채록
- 2012년 3월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 개편 계획 수립
- 2012년 4월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개편 및 편집위원회 개최 (4월 17일)
- 2012년 4월 <제1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4월 24일)
- 2012년 5월~12월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 2012년 9월 통권 제6호 『인천연구』 발간 (9월 30일)
- 2012년 10월 ~ 12월 『2012 인천 부평구 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 2012년 11월 <제2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11월 15일)
- 2013년 1월 ~ 인천도시인문학 DB구축
- 2013년 1월 ~ 인천 시민생활사 구술자료 채록 수집 연구
- 2013년 1월 <제3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강화도 교동도(1월 19일)
- 2013년 3월 ~ 2014인천아시아게임행사 성화봉송행사 연구
- 2013년 3월 <제4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3월 7일)

○ 기본방향

- 인천의 역사·문화·사회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
- 인천의 도시인문학 자료와 인문자원을 축적·콘텐츠화하여 문화·경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인문학과 도시정책연구를 융합시켜 인천의 고유성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 정책과 비전을 수립함

○ 주요 기능

- 인천 도시인문학의 체계화 :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상에 대한 근대 성찰적 연구와 인천 고유 자원과 역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인천 인문자료와 자원의 콘텐츠화 : 인천 인문학의 기초자료 및 연구 결과 아카이브화, 활용도 높은 콘텐츠로 전환
- 융합연구를 통한 정책연구의 혁신 : 도시 ‘인문학-정책학’의 협동·융합 연구를 통해 지역 고 유자원에 기초한 대안적 도시재생과 도시비전 생산

○ 주요 사업

○ 인천도시인문학 DB구축

- 인천 도시경관이미지(사진, 엽서) 수집 및 입력
- 인천 도시 변화 관련 도판, 지도 수집 및 입력
- 인천 경관 묘사 외국인 기행문 번역 및 입력

○ 인천시민생활사 구술자료 수집

- 시민원로의 인천시민생활사 및 증언 채록
- 인천시민생활사 자료집 발간

○ 〈도시인문학세미나〉개최

- 도시 인문학 주제 국내외 학자 초청 강연
- 연 4회 개최 예정 (1월, 3월, 7월, 10월)

○ 『인천연구』 학술지 발간

- 연 1회 발간
- 인천도시연구 및 해양문화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게재